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로 상향... 적정성 논란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지급액〉

40년 납부 기준, 입사 늦고 퇴직 이른 요즘과 맞지 않아 노후 보장·지속 가능성 '갑론을박'... 사회적 합의 필요

여자가 지난 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뜻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소득'인데, 평균소득에 비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된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할 때에는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명목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여자가 합의한 소

득대체율 모두 '명목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입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입사가 늦고 퇴직은 이른 상황에서 4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소득 200만원의 25년간 가입자는 대략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25%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1988년 노태우 정

부시절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70%였다. 부담 수준과 비교하면 연금 수령액이 관대한 편이었다.

첫 번째 개혁은 국민의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단행됐다.

소득대체율이 60%로 떨어졌고 연금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했다.

두 번째 개혁은 2008년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50%로 하향 조정하고서 매년 0.5%씩 더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게 하는 안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끌어올리도록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의 두 축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에 대한 논란은 낸 돈에 비해 적절한 연금을 수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보장수준이 부족하다는 쪽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생활비로 총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어 '용돈연금'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과거

의 국민연금 개혁에 동력이 됐던 부분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글에서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재정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을 개선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사 중단' U대회 축구훈련장

4일 범원의 공사중단 명령이 내려진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보라매 축구공원(광주 U대회 훈련장)' 공사현장에서 일부 인부들이 건설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두달 앞둔 광주 U대회, 축구장 공사 전면 중단

법원, 개보수공사 계약효력정지 결정에 광주시 가져분 취소 신청... 대회 차질 우려

오는 7월 3일 개막하는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 U대회)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져분이 인용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이정환 부장판사)는 4일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 효력정지 등 가져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B사가 지난 3월 27일 체결한 '2015 하계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시는 입찰 공고와 시방서에서 구매 규격 제품에 대

한 램(연구실)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A사를 비롯한 입찰 참가자의 계약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 계약을 무효로 봤다.

광주시는 법원의 가져분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중단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설치와 필드 테스트 등 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곧바로 가져분 효력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특

별사정에 의한 가져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가처분이 유지되면(광주 U대회)대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입장료 수입, 광고수입 저하에 따른 적자 대회 등의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U대회 준비과정에서 국제대학스포츠클럽(FISU)으로부터 국제 축구연맹의 최고 등급인 '2-Star'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설치를 요구받고 새롭게 인조잔디 구매 설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3월 27일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국제축구연맹 최

종 인증기반인 다음달 20일까지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유예해줬으며, 입찰에서 탈락한 A사는 계약 후 유예 조치 등은 특혜이고, 부당한 입찰이라며 가져분을 냈다. 이 공사는 광주U대회 축구경기 참가국의 훈련장으로 쓰일 광주 과학기술원 운동장 등 3곳(6면)에 인조잔디를 깔려는 것으로 공사비는 29억 9000여만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서류만을 검토해 9순위로 탈락한 업체의 가져분을 받아들였다"며 "잔디길이 등이 세부 시방서 기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는 공고 단서조항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시한 만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율기자 박진표기자 dok2000@

삼성 이건희 회장 입원치료 1년

휠체어 앉아 재활훈련...인지기능 '아직'

오는 10일이면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 치료 1년을 맞는다. 지난해 5월 10일 저녁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 회장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4일 삼성 등에 따르면 의료진이 구체적인 상태를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발병 당시 위중함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호전됐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할 정도로 회복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심폐 활동을 포함한 신체 기능은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10일 밤 한남동 자택에서 호흡근관과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인근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작년 5월 11일 새벽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막힌 심혈관을 뚫어주는 심장 스텐트



이건희

트(stent) 시술을 받았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뇌와 장기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체온 치료를 받고 진정 치료를 계속했다.

이 회장은 입원 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어 보름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었다. 이 회장은 여전히 삼성서울병원 20층 VIP 병실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주변의 자극에 일정 정도 반응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인지기능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병세와 치료 방법이 환자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해 건강 상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에베레스트 해발고도 2.5cm 낮아져

네팔 지진으로 지각 느슨

최근의 네팔 대지진으로 에베레스트의 해발 고도가 2.5cm 낮아졌다고 국제연구진이 밝혔다. 에베레스트의 해발고도는 8848m이다. <관련기사 8면>

4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미국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연구 대학원

합인 UNAVCO 과학자들은 네팔지진으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이동후 지각이 느슨해지면서 에베레스트의 고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팔지진으로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7200명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신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험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복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